

작품 내용

제 목	허락을 묻는 길
내 용	“악보는 어떻게 구하셨나요?”
	공연 허락을 부탁드리려 연락한 작곡가의 질문 앞에서 나는 곧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 악보는 오래전부터 동아리 온라인 카페에 보관되어 있었다. 선배에게서 후배에게로 전해져 온 여러 악보 중 하나였고,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기록도, 처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도 남아 있지 않았다. 공연은 허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쥐고 있던 악보의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정을 설명하는 동안 정말 크게 부끄러웠고 또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한 대학의 국악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여덟 차례의 정기공연을 준비했다. 예전부터 동아리에는 알음알음 전해져 온 악보가 많았다. 돈을 아끼려고 생긴 관행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웠다. 어디에서 악보를 사야 하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공연과 영상 게시를 각각 허락받아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곡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몰랐다는 이유는 무단 이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공연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우리는 더욱 문제를 의식했고, 올해 내가 동아리의 악장을 맡으면서 공연하는 모든 창작곡의 이용 경로의 확인을 추진했다. 카페에 쌓여 있던 기존 악보도 다시 열어 어디에서 구했는지, 어떤 이용을 허락받았는지 하나씩 확인해 곡마다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나를 말문 막히게 했던 그 곡부터 다시 확인했다.
	곡마다 허락에 이르는 경로는 달랐다. 어떤 곡은 온라인 판매처에서 값을 지불하고 악보를 샀다. 어떤 곡은 별도의 공연 사용료를 냈고, 공연 영상을 게시해도 되는지 다시 물었다. 또 어떤 작곡가는 학생 동아리의 연주를 반갑게 여기며 악보를 보내 주고 연주 방법까지 알려 주었다. 그 허락 덕분에 우리는 그 곡을 교내 정기 공연 무대뿐 아니라 공원 버스킹에서도 연주했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음악을 들었다. 자신의 작품에 들인 시간과 전문성에 정당한 값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자신의 곡이 더 자주 울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모두 창작자의 선택이었다. 문제는 무료인가 유료인가가 아니었다. 창작자가 원하는 이용 방식을 연주자가 확인하고 따를 수 있는 통로가 우리 같은 이용자에게 있는가였다.
	그러던 차 우리 동아리는 TV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다. KBS 국악한마당 1600회 특집 출연이 정해지고 어떤 곡을 올릴지 고르던 무렵이었다. 그 끝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항해>라는 곡을 골랐다. 이 곡의 악보는 작곡가가 온라인에 공개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둔 상태였다. 하지만 악보를 복제하는 일과 무대에서 공연하는 일, 그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은 각각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과 관계되는 서로 다른 이용 행위였다. 악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작곡가가 모든 이용을 같은 방식으로 허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졸업한 선배에게 들은 말도 있었다. 작곡가들은 자기 곡이 어디에서 연주되는지 적어도 미리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작곡가에게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먼저 작곡그룹의 공식 메일로 문의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결국 그 그룹과 함께 활동했던 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 조심스럽게 연결을 부탁드렸다.

그리고 며칠 뒤, 어렵게 닿은 작곡가에게서 답장이 왔다. 자신의 곡을 찾아줘서 고맙다며 얼마든지 공연해도 좋고, 연주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다. 큰 감사함 안도와 함께 허락을 구하는 일이 창작자에게 번거로운 요청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연주하고 싶다고 알리는 일은, 그 작품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 허락을 받아 우리는 〈향해〉를 들고 특집의 마지막 무대에 섰다. 우리가 올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연락한 방송 작가님 그리고 관객을 거쳐 우리의 연주는 다시 영상으로 게시되었다. 한 연주자를 다음 무대로 연결하고, 한 작품을 아직 만나지 못한 관객에게 보내는 전달이자 향해의 길이라고 말한다. 작곡가의 한 번의 허락이 한 곡을 더 큰 무대로, 다시 더 많은 사람에게 데려간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악보를 구하는 순간부터 공연하고, 편곡하고, 촬영한 영상을 올리는 순간까지 저작권이 이어진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 뒤 저작권법을 찾아보고서야 알게 된 것도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우리가 섰던 무대 가운데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리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은 공연과 방송에 관한 예외였다. 악보를 복제해 나누거나 공연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일까지 허용해 주지는 않았다. 묻지 않아도 되었을 무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그 무지는 새로운 배움으로 이끌었고 분명 덕분에 곡을 만든 사람과 처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리라.

그리고 나는 이 경험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여 행동을 시작했다. 동아리원 몇몇과 국악 작곡가 세 명과 전공자 두 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전공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약 서른 명을 대상으로 설문도 진행했다. 전공자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곡을 찾고 악보를 구하는 과정에서 교수나 선배의 인맥에 기댄다고 답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대학 정기연주회에서 초연된 곡들은 공연이 끝나면 학과와 개인의 폴더에 남아 다시 연주될 기회를 잃었다. 연주자는 곡을 찾기도 연락처와 구매 경로를 몰랐다. 작곡가들에게서는 문제의 다른 면이 보였다. 자기 작품이 더 많이 연주되기를 바라면서도, 권리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나 작품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추는 방식에는 우려를 보였다. 국악 창작곡의 문제는 작품의 부족도, 선의의 부족도 아니었다. 연

주자는 정당하게 이용하고 싶어 하고, 창작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작품을 나누거나 대가를 받고 싶어 한다. 다만 두 의지가 만날 주소와 절차가 부족했다.

그 부족함을 줄여 보고 싶어 우리는 ‘파로’ (波路)라는 국악 창작물 탐색·연결 서비스를 만들었다. 인터뷰와 설문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임새와 악기, 정서로 곡을 찾고, 악보를 구할 곳을 확인하고, 창작자에게 직접 문의하기까지의 흐름을 설계했다. 이를 실제 웹사이트로 구현해 대학생 창업대회에도 출품했다. 결과는 본선 탈락이었다. 웹사이트를 열어 두는 데서 그쳤고, 사람들이 실제로 드나드는 곳으로 키우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준비 과정에서 만난 작곡가와 연주자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응원은 마음 깊이 남아 있다..

이 일을 겪으며 저작권을 존중하자는 말은 부족하다고 느꼈다. 창작자의 이름과 연락 창구, 악보 구매처와 이용 범위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고, 확인한 내용은 담당자가 바뀐 뒤에도 이어져야 한다. 권리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마음이 닿을 주소가 있어야 한다.

나는 국악을 사랑하고 지식재산권을 배워 가는 한 명의 학생이다. 한 곡이 창작자의 서랍에서 나와 공원의 행인에게, 방송을 보던 누군가에게 건너가는 일은 그런 길이 있을 때 일어났다. ‘파로’ (波路), 물결의 길이라는 이름처럼 국악의 울림이 다음 연주자와 더 넓은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다. 처음 허락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허락은 음악을 멈춰 세우는 문턱이 아니라, 그 항해를 오래 이어 주는 길이라는 것을.